

경제구조조정 이후 외국인투자의 특성변화와 입지적 의미*

주 성 재**

요약 : 이 연구는 경제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의 입지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의 집중도 증가 뚜렷하며, 부문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의 수도권 집중도 증가가 월등하다. 투자비율 별로는 50% 미만 투자의 수도권 비중 증가와 100% 단독투자의 서울 비중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투자국 별로는 입지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입지특성을 낳은 요인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의 입지의사결정과정 조사, 각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및 유형별 사례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

주요어 : 외국인투자, 경제구조조정, 입지결정, 수도권

1. 서 론

1) 연구 목적

기업의 투자결정은 곧 입지결정이며 그 자체로서 공간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의 O-D (Origin-Destination)를 비롯하여 투자업종, 투자방법 및 금액, 소유권 등 투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산업입지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또한 투자가 결정되어 사업체가 입지하게 되면 물자, 서비스, 기술·정보 등의 전·후방연계, 그리고 지역노동시장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특성을 밝혀 지역발전 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Blackbourn, 1978; Daniels, 1971; Dicken, 1992).

우리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자금 지원으로부터 시작된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년 이후 외국인투자의 건수와 금액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외국인투자의 추세에 대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반면, 이러한 투자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에 대한 자료는 없어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필요하다고 하겠다.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 이 연구는 2001년도 경희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이 연구는 경제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의 입지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투자의 입지적 특성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까지 연구된 바 있으나(주성재, 1986; 이병민, 1991), 그 이후 외국인투자 입지유도의 필요성을 제안한 단보(주성재, 1994)와 사업서비스 분야에 국한하여 입지와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병민, 2001)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90년대 말 거대한 구조조정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는 이전과는 많은 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서 이전에는 외국기업의 신규 단독투자(greenfield investment)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가 주요한 투자방법이었다면, 구조조정 과정의 투자는 국내 부실기업의 인수(acquisi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가 발견된다. 투자업종, 투자국, 투자액 등에서도 차이가 예상되며, 이러한 차이는 생산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 차이로 연결될 것이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업종, 투자국, 투자방법 및 금액, 소유권, 입지 등 외국인투자의 여러 속성 면에서 최근의 투자가 이전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를 정리하고 주요한 패턴에 따라 유형화한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지를 밝히고 국내·외 기업이나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특성과 입지적 의미에 근거하여 향후 외국인투자의 지역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시론으로서 이 연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외국인투자의 입지특성 변화를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한다.

자료는 산업자원부에서 발간된 『외국인투자기업현황』(2000)에 수록된 2,818개의 외국인투자제조업체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였다. 여기에는 각 업체별 업종, 투자주체, 투자액, 투자비용, 본사입지, 공장입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세계화·지방화시대 외국인투자의 이론적 틀

1980년대 중반까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설명하는 이론은 경영학과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독점적 우위이론(Hymer, 1976), 제품수명주기이론(Vernon, 1966), 과점경쟁이론(Knickerbocker, 1973), 그리고 독점적 우위이론, 입지이론, 내부화이론을 절충한 절충이론(Dunning, 1981)을 들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가 선정 요인을 밝히는 이들 이론은 한 국가 내에서의 입지결정 요인을 밝히는 데 원용될 수 있다. 과점경쟁이론에서 도출된 follow-the-leader behavior,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추론된 임금저렴지역에 대한 선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경제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었다. 세계화를 겪으면서 자본의 이동은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한 나라의 경제환경변화는 연계된 다른 국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제로 편입되었다(Conti, 1995).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외국인기업과 접촉함으로써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고 있다. 국가보다는 도시 또는 지역이 더욱 활발한 경제주체가 됨으로써 세계도시체계를 따라 경제활동이 재

편되고 이는 다시 도시의 성장과 쇠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Nahm, 1995). 투자와 무역과 같은 국제경제활동도 환경적인 요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Soyez, 2000).

아울러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제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느끼는 배출요인(push factor)과 투자대상국에서 사용하는 흡입요인(pull factor)으로서의 정책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해야 한다.

2) 경제구조조정 이후 외국인투자의 특성변화

외국인투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로는 업종, 투자국, 투자방법 및 금액, 소유권, 그리고 운영단위별 입지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비스분야, 특히 금융, 보험, 부동산, 법률 등과 같은 생산자서비스업 부문에의 투자가 증가해 왔으며, 신규투자보다는 기업의 인수나 지분참여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투자의 영향으로 인한 대도시 내부입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핵심지역에의 입지가 중요한 추세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실기업의 매각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국내기업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생산시설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여 현재 입지에서의 생산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투자의 경우 안전을 고

려한 입지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 외국인투자의 변화 특성

1) 전반적 추세

경제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로의 외국인투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총액(stock) 개념으로 볼 때 1997년 1,055건에 69.7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말 현재 4,140건에 156.9억 달러로 건수로 4배, 투자액으로 2.3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제조업이 71억 달러로 45%, 서비스업이 86억 달러로 55%를 차지한다. 2000년 현재 남아있는 외국인투자제조업체 2,818개 중에서 1998년 이후 등록된 것은 901개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전체적인 지식기반경제화의 영향으로 전자·전기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투자비중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97년 이전과 98년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의 비중은 56%에서 24%로 감소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에서 30%로, 유럽은 20%에서 44%로 증가하였다. 투자비율로는 50%를 초과하는 투자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100% 단독투자의 비중도 97년 이전 22%에서 98년 이후 30%로 증가하였다.

2) 전체적 입지특성

경제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는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하는 패턴을 보인다. 수도권 집중도는 97년 이전에 투자한 제조업체의 경우 58.7%에서 98년 이후 68.3%로

표 1. 외국인투자기업 입지현황

	외국인투자업체 (2000년) ¹⁾			외국인투자 업체(1983년) ²⁾	국내전제조업체 (1998년) ³⁾
	전 체	투자시기별			
		1997년 이전	1998년 이후		
서울·인천·경기	1,669 (61.8)	1,079 (58.7)	590 (68.3)	292 (50.3)	42,684 (53.7)
서울	730 (27.0)	423 (23.0)	307 (35.5)	88 (15.2)	14,878 (18.7)
인천·경기	939 (34.8)	656 (35.7)	283 (32.8)	204 (35.1)	27,806 (35.0)
부산·울산·경남	374 (13.8)	285 (15.5)	89 (10.3)	167 (28.8)	14,670 (18.4)
대구·경북	196 (7.3)	149 (8.1)	47 (5.4)	55 (9.5)	10,066 (12.7)
대전·충남·충북	310 (11.5)	223 (12.1)	87 (10.1)	66 (11.4)	5,421 (6.8)
광주·전북·전남	127 (4.7)	86 (4.7)	41 (4.7)		5,337 (6.7)
기 타	26 (1.0)	16 (0.9)	10 (1.2)		1,366 (1.7)
계	2,702 (100.0)	1,838 (100.0)	864 (100.0)	580 (100.0)	79,544 (100.0)

자료 : 1) 산업자원부, 2000,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서 필자 정리; 2) 주성재, 1986; 3) 통계청, 1998,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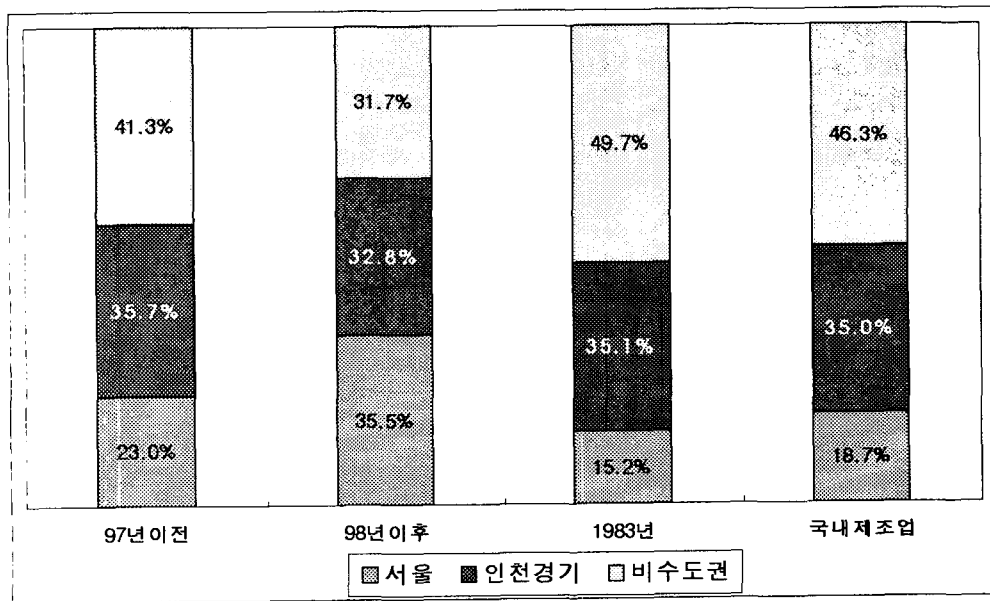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투자기업의 권역별 분포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에의 집중도 증가가 23.0%에서 35.5%로 뚜렷하다. 이것은 1983년 현재의 외국인투자나 국내 전 제

조업체와 비교할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서울에의 집중이 그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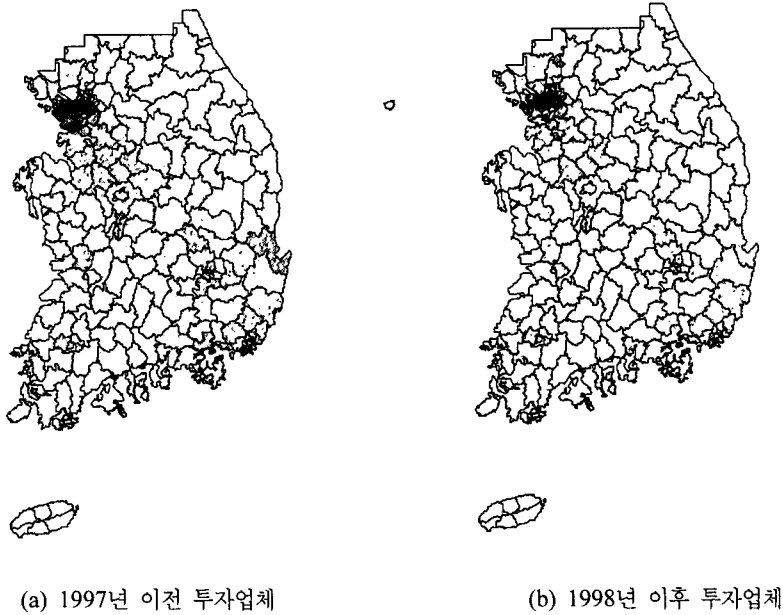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남권 지역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내제조업체에서의 비중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인 반면, 충청권의 비중은 98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국내제조업이나 83년 외국인투자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것은 충청권이 수도권을 대체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3) 투자특성별 입지변화

경제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입지변화를 주도한 요인을 각 투자특성별 입지변화의 면모를 분석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주요한 두 개의 투자국인 일본과 미국은 서울에의 투자비중이 증가한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업종의 집중증가가 뚜렷하다. 이 업종의 서울집중도는 97년 이전 투자업체의 29%에서 98년 이후 48%로 두 배 가까

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로도 68%에서 86%로 증가하였다. IT산업, 첨단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자·전기 부문에 있어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으로의 지향성이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투자비율로는 지분 50% 미만의 투자가, 금액으로서는 30만 달러 미만의 비교적 소액투자가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의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비율로는 100% 전액투자 역시 서울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금액으로는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만이 입지변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그 이하 투자는 공통적인 입지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입지변화 특성을 종합하면, 경제구조조정 이후 제조업 부분 외국인투자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집중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전자·전기 부문에서 소수지분의 소액투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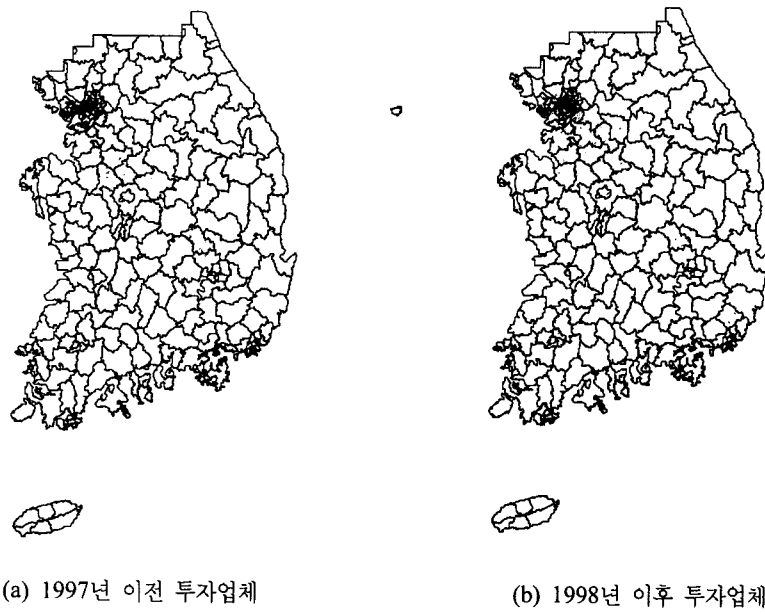


그림 3. 전자·전기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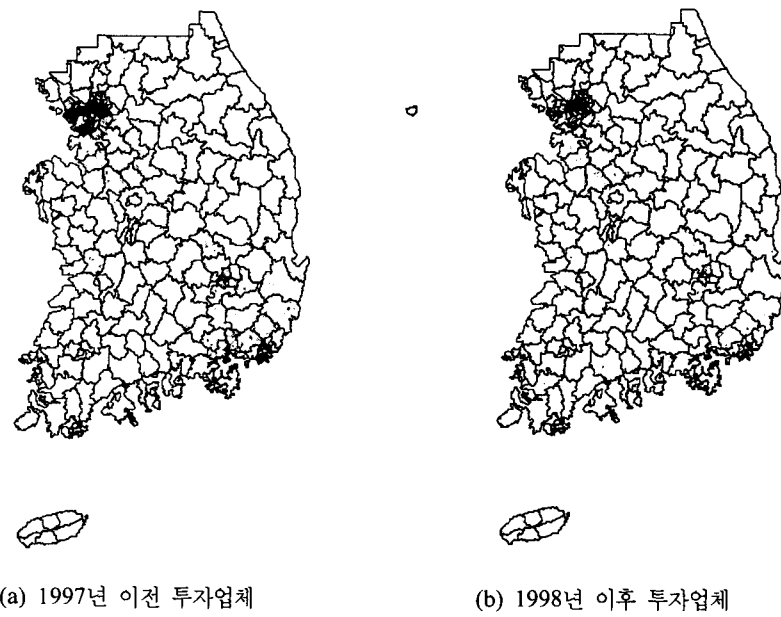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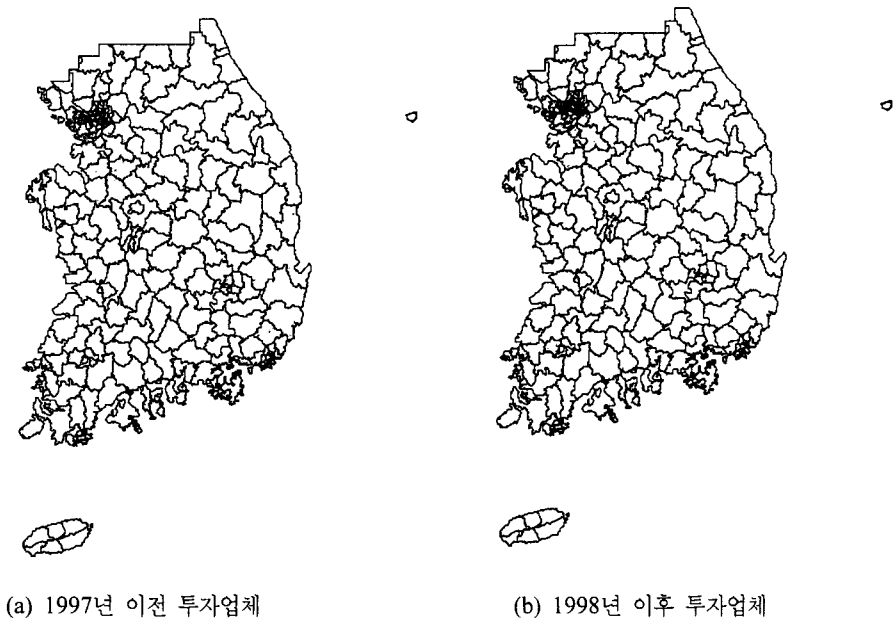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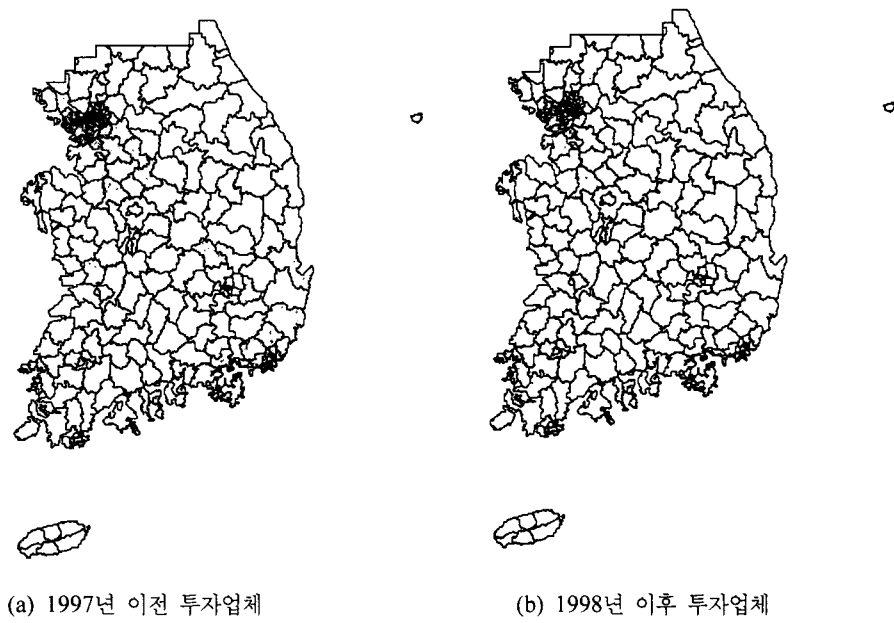


그림 6. 투자비율 50% 이하 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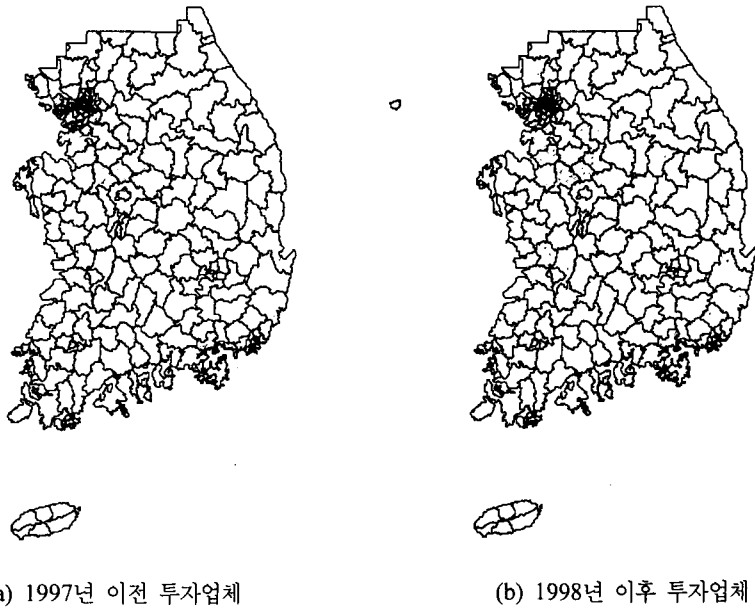


그림 7. 투자비율 100% 단독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표 2. 경제구조조정 이후 투자특성별 입지변화의 유의성 분석

		카이제곱 확률값 ¹⁾		특기사항
		8개 지역	6개 권역	
투 자 국	일본	0.015	0.186	서울비중 20.2% → 31.6%
	미국	0.019	0.231	서울비중 24.9% → 38.7%
업 종	화공	0.353	0.286	
	기계	0.226	0.132	
	전자·전기	0.000	0.000	서울비중 29.0% → 47.9% 수도권 67.8% → 86.0%
	운송용기계	0.530	0.519	
투자비율	50% 미만	0.000	0.000	서울비중 20.6% → 33.1% 수도권 58.0% → 71.5%
	50%	0.238	0.297	
	50% 초과 100%미만	0.588	0.872	
	100%	0.018	0.289	서울비중 31.8% → 43.8%
투 자 액	30만달러 미만	0.007	0.070	서울비중 32.6% → 43.8%
	30만달러~100만달러 미만	0.007	0.134	서울비중 22.5% → 40.4%
	100만달러~300만달러미만	0.049	0.032	서울비중 14.5% → 25.2% 수도권 52.5% → 69.9%
	300만달러이상	0.171	0.242	

주 1 : 1997년 이전과 1998년 이후의 두 시기에 대하여 입지변화가 있는지를 전국 8개 지역과 6개 권역에 대하여 각각 분석한 카이제곱 확률값으로서, 6개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권(부산·울산·경남), 대구권(대구·경북),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기타(강원·제주)이며, 8개 지역은 이중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경기로, 부산권을 부산과 울산·경남으로 세분한 것임

주도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전자·전기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한다고 할 때 이들이 국내기업 못지 않은 수도권지향성을 갖고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다른 지역보다 높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가능성을 보았던 대전·충북·충남지역에서는 일본으로부터(11.3%에서 11.8%로 증가), 화공(19.2%→20.2%) 및 운송용기기(15.8%→18.0%) 부문에, 300만 달러 이상 대규모로(17.1%→15.8%), 100% 단독의(11.9%→10.5%)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수치일 뿐, 충청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가능성은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 후에야 근거를 갖고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이 연구는 경제구조조정 이후 외국인투자의 입지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잠재력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예측되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치하였던 외국인투자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는 각 기업별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러한 예상은 현실과 들어맞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조조정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도가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전기·전자 부문의 기업, 투자비용 50% 이상인 기업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입지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입지특성을 낳은 요인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안전을 고려한 주도기업을 따라가는 입지패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는 기업의 입지의사 결정과정을 세밀히 관찰한 후에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유형별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 기술,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 특히 본사와 세계 각 지부, 그리고 각 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국가나 국제조직, 그리고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도 향후 연구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기·주성재, 1994, 지방의 국제화 추진전략,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삼욱, 1999, 현대경제지리학, 서울: 아르케.
- 박삼욱·주성재·남기범·황주성 (편역), 1998,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모,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규방 외, 1998, 경제구조조정에 대응한 국토현안과제, 안양: 국토개발연구원.
- 이병민, 1991, 외국인직접투자의 공간패턴 및 지역연계,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민, 200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사업서비스업체를 사례로,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성재, 1986, 한국에 있는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의 입지패턴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성재, 1994,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입지유도의 필

- 요성," 서울시정연포럼 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성재, 1998, "관광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지 출흐름분석 방법론의 모색,"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 pp.113-135.
- Alvstam, C., 1995,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direct investment: Asian pacific patterns," in LeHeron, R., and Park, S.O.(eds.), *The Asian Pacific Rim and Globalization*, Aldershot: Avebury, pp.107-128.
- Asheim, B., 1995, "Industrial districts as 'learning regions': a condition for prosperity?," *Paper presented at the Residential Conference of IGU Commission on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Space*, Seoul, Korea.
- Blackbourn, A., 1978,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a comment," *Regional Studies* 12, pp.125-127.
- Choo, Sungjae, 1994, "Production system changes in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sector," *Growth and Change* 25, pp.165-182.
- Conti, S., 1995, "Global-local perspectives: a review of concepts and theoretical proposals," *Paper presented at the Residential Conference of IGU Commission on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Space*, Seoul, Korea.
- Daniels, J.D., 1971, *Recent Foreign Direct Manufacturing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 Interview Study of the Decision Proces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Dicken, P., 1992, *Global Shift: Industrial Change in a Turbulent World* (= 2nd ed.), London: Harper & Row.
- Dunning, J.H., 1981,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 Univ.
- Erickson, R.A., 1994, "Technology,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regional development," *Growth and Change* 25, pp.353-379.
- Harrington, J.W., 1995, "Empirical research on producer service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parisons," *Professional Geographer* 47, pp.66-69.
- Hayter, R., and Watts, H.D., 1983, "The geography of enterprise: a reapprais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7, pp.157-181.
- Hymer, S.H., 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 Knickerbocker, F.T., 1973,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Harvard Univ.
- Marshall, J.N., 1979, "Ownership, organization and industrial linkage: a case study in the northern region of England," *Regional Studies* 13, pp.531-557.
- McConnell, J.E., 198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s Stat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 pp.259-270.
- Nahm, K.-B., 1995, "Multinational corporate control links and changes in the global city system," *국토계획* 30(1), pp.377-411.
- Scott, A.J., 1992, "The role of large producers in industrial districts: a case study of high technology system houses in southern California," *Regional Studies* 26, pp.265-275.
- Soyez, D., 2000, "Environmental knowledge, the power of framing, and industrial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Residential Conference of IGU Commission on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Space*, Dongguan, China.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pp.190-207.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5, No. 2, 2002(175-185)

Characteristic Changes and the Locational Implica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fter the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Sungjae Cho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e-mail: sjchoo@khu.ac.kr)*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veal what locational chang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prominent in Korea after the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s beginning in 1997. These locational changes would have some potential impacts on the local or national economy. One can expect that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would have intensified after the restructuring because the competitiveness focus would have led foreign investors to high potential areas. An analysis of the data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hows that this expectation has come into reality. Within SMA, Seoul shows even bigger changes in the locational share than surrounding areas. Also prominent are increases of the locational share of the SMA in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anies and in those companies with less than fifty percent investment share. But this pattern is not found distinctly by home country of investment.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restructuring, location decision process, Seoul Metropolitan Area.